

환경기술 지적재산권 세미나 9월8일 개최

기후변화협약과 환경상품의 관세철폐 움직임 등 신환경 패러다임의 국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대기업의 환경기술 특허·실용신안 관리 노하우(Know-How)가 삼성전자, 포스코, SK로부터 공개된다.

특허청은 환경기술 분야에서는 최초로 환경기술의 지적권 강화를 위한 산·관·학 세미나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대한환경공학회 환경지재권전문위원회,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9월8일 전경련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환경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이끌고 있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삼성전자, SK 등 대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리 조직운영방안 및 지적권 출원자에 대한 로열티 지급 등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과 같은 지적재산권 관리 노하우가 중점 다루어질 예정이다.

특허청은 FTA로 환경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환경기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 경쟁기업 대비 핵심·원천기술의 축적도가 미흡해 제조·판매 중심의 경영정책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국내 중소 영세기업에게 산·관·학 세미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산·관·학 세미나는 환경기술의 지적권 강화를 위한 산·관·학 공동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서, 향후 국제동향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기업 주도의 산·관·학 공동 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학저널 2006/09/01>